

청소년 음주행위의 실태 및 변화와 관련 요인들에 관한 분석

김용석·김정우·김성천*

본 연구는 첫째, 전국에 거주하는 중·고생 4,373명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행위에 대한 정보와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행위와 외국 청소년의 음주행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행위 수준을 파악하며, 셋째, 청소년 음주행위와 관련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전국을 대도시(서울 및 6대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군 이하)으로 구분한 후 각 지역의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였으며 방문 및 우편조사를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회수한 후, 빈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75.7%로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음주경험률이 여학생의 음주경험률보다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음주경험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청소년 음주문제가 남학생과 여학생 공통의 현상인 것으로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음주경험률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여 중학생의 경우 10명 중 6명, 고등학생의 경우 10명 중 8명 이상이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 김용석 :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조교수.

김정우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김성천 :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와 같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행위는 미국 청소년의 음주행위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한 달 동안의 음주경험률과 폭음률에서는 미국 자료와 비교해 볼 때 성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3년간 청소년 음주행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학생들과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인 중학생들의 음주경험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음주와 관련요인을 회귀모델로 분석한 결과, 또래 관련요인이 청소년의 음주행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부모 관련 요인들이 특히 음주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자원 중에서 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인 문제대처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청소년의 음주행위가 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 약한 청소년은 자주 술을 마시며 마시는 술의 양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는 청소년의 음주행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관련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향후 음주행위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지역적 차이점 등을 고려한 후속연구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최근 들어 사회복지학계에서 청소년의 음주행위에 대한 연구가 과거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79년부터 발간된 사회복지학계의 대표적 학회지인 《한국사회복지학》을 보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주를 주제로 한 논문이 극소수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청소년 음주를 연구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어 이 분야에 관한 학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음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나 오늘날까지 수행된 연구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거의 전무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음주행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1998)가 1997년에 실시한 전국조사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연구가 지역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음주행위를 제시하는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청소년 음주와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시간적 흐름에 따른 사회문제의 변

화를 살펴보는 추이연구(*trend studies*)가 국내에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도 하다. 시간적 흐름에 따른 청소년 음주행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음주행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 청소년 음주를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 음주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즉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청소년 음주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특정 요인만으로 제한하여 연구하는 경향을 보여(김용석, 1999; 윤혜미 등, 1999; 장승옥, 2000)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로 사회복지에서 관심있게 다루어지는 다른 사회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음주행위 역시 특정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이 음주를 하게 되는 이유를 보다 깊이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다. 또한, 청소년 음주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이해는 보다 활발한 음주행위를 보이는 고위험 청소년들의 개인적·환경적 특성에 대한 정보도 동시에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과 청소년 음주행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시도는 궁극적으로 청소년 음주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실천적 함의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수행되었다.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행위에 대한 정보와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행위와 외국 청소년의 음주행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행위의 수준을 파악하며,

셋째, 청소년 음주행위와 관련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본 절에서는 청소년 음주와 관련된 주요 국내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청소년의 음주행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틀을 제시

하고자 한다.

1) 청소년 음주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문제점

우리나라 청소년층의 음주수준이 심각하며 알코올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물임이 이미 몇몇 조사들을 통해서 밝혀져 왔다(문화체육부, 1994;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1998;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최근 들어서는 사회복지학계에서 청소년의 음주경험 이외에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행위를 이해하려는 노력들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승옥(2000)은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를 측정하는 여러 변수와 음주에 관한 대처동기와의 관계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88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용석, 1999)는 문제성 음주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다양한 정신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음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더 심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문제성 음주 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윤혜미 등(1999)의 연구와 김용석 등(2001)의 연구는 청소년의 음주행위와 음주기대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이 음주에 대해 갖는 기대와 청소년의 음주유형이 서로 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고등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인 중학생이 음주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 외에 부모 관련 요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 가족규칙 등이 포함되었음)과 청소년 음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시도(김용석, 1999)가 있었다.

그러나 앞서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음주행위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도달한 것을 알려주고는 있지만, 그 대상이 전국지역이 아닌 일부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음주행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가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음주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청소년 음주행위와 관련 있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특정 요인들(예: 음주기대, 부모의 양육태도, 대처동기)로만 제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음주행위의 원인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s) 중의 하나인 또래 관련 요인들(예 : 음주와 관련된 또래압력, 친한 친구의 음주 행위 등)이 선행연구들에서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선행연구의 한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의 실정과는 달리 외국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청소년 음주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행동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조사로는 Monitoring the Future Study(이하 MTF), National Household Survey on Drug Abuse(이하 NHSDA), Youth Risk Behavior Survey(이하 YRBS)를 들 수 있다(O'Malley, 1998). MTF는 청소년들의 음주 및 약물사용과 그와 관련된 태도 및 신념 등을 조사하고 있고, NHSDA는 12세 이상의 전국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알코올 및 약물사용의 실태조사이며, YRBS는 음주행위를 포함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매년 두 차례씩 지난 10년 동안 조사해 오고 있다(O'Malley, 1998). 이러한 조사들은 청소년 음주행위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음주행위의 변화를 파악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청소년 음주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분석(Costa et al., 1999; Scheier et al., 1997)을 하여 청소년 음주행위의 원인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최초로 음주를 시도하는 원인과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는 원인 등과 같이 청소년 음주행위의 단계에 따른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Scheier et al., 1997)도 진행되어 왔다.

2) 청소년 음주행위의 이해를 위한 개념적 틀

음주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유전적 원인, 환경적 원인, 심리적 원인이 있듯이 청소년 음주의 원인을 특정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지만, 청소년 음주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기 음주를 촉발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사회학습요인(*social learning factors*)을 들고 있다(참고 Scheier et al., 1997). 또래나 부모와 같은 역할모델이 사회학습요인에 포함되며(Scheier et al., 1997), 사회학습이론은 사람은 모방과 강화과정을 통해서 특정 행동을 학습한다고 주장한다. 즉, 청소년은 성공적이고 존경할만한 인물(예 : 부모)이 음주행위를 하는 것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이

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친구나 동료집단에서 알코올, 흡연, 약물사용이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일 경우 집단압력에 대한 감수성이 약화될 것이다. 심지어는 부모, 친구, 주변 인물의 음주행위를 관찰함으로써 음주 및 약물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데(Smith et al., 1995) 이러한 인식을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음주기대(*alcohol expectancies*)로 표현하며 음주기대와 같은 인지적 요인이 청소년 음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국내외 연구(윤혜미 등, 1998; 김용석 등, 2001; Christiansen et al., 1983; Brown et al., 1987)들은 밝히고 있다. 현재 외국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는 다수의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은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하여 청소년 음주 및 약물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Albee(1982)는 자기효능감, 대처기술과 같은 인지적·행동적 대처기술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와 같은 심리·사회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음주문제를 포함한 정서적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하면서 자기효능감, 대처기술,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는 것에 예방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요인들 이외에도 청소년 개인의 개인적 특성도 청소년 음주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性)과 연령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부모의 음주문제와 같은 유전적 특성도 청소년 음주행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인이다. 또한 알코올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으며 스트레스는 음주량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여 사람들은 스트레스(긴장)가 많으면 많을수록 음주를 하게 되고 음주량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긴장감소가설도 청소년기 음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청소년의 음주행위와 관련 있는 요인에 대한 고찰

본 절에서는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 음주행위와 관련있는 요인들을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심리사회적 자원¹⁾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심리 사회적 자원은 개인적 요인으로 분류될 수도 있겠으나 이를 강조하기 위해 개인적 요인과 구분하였다.

(1) 개인적 요인

① 연령

연령은 청소년의 음주행위에 관한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 중의 하나로 밝혀져 왔다(Kandel, 1980; Fillmore, 1988; Bucholz, 1990). 연령의 변화에 따른 음주행위의 증가는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초의 음주행위, 폭음정도, 음주수준 등 모두 포함하여 동일한 결과가 조사되었다(Kandel et al., 1985; Burke et al., 1990; Johnston et al., 1991).

Kandel 등(1985)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0년간의 종단적 연구를 한 결과 10세에서 14세 사이에 첫 음주경험을 한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률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18세가 되었을 때 가장 위험률이 고조된 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폭음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은 18세이며 그 경향은 20세가 된 후부터 감소한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알코올사용과 의존위험도가 가장 높은 연령도 15세에서 19세 사이로 나타났다(Burke et al., 1990). 또한 15세 이전에 처음 음주행위를 시작한 아동은 향후 청소년이 되었을 때 폭음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결과도 있다(Samson et al., 1989). 첫 음주행위 연령을 지연시킬수록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알코올뿐 아니라 다른 약물을 사용할 확률도 현저하게 감소된다는 것이다.

② 성

연구조사에 의하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술을 많이 마시며, 자주 마시고, 또한 알코올 관련 문제를 더욱 많이 경험한다고 한다(Bucholz, 1990). 청소년기의 남자와 여자의 음주행위 및 음주 관련 문제들은 모든 인종 안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점의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다르다. 주로 여자들의 경우 특정 사회에서는 금욕의 수준이 매우 높아 남자와 비교할 때 많은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Bachman et al., 1991), 최근에는 특히 여자 청소년 음주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남성과의 편차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Hilton, 1991). 이러한 경향을 설명하려는 이유도 다양한데, 남녀의 성별차이가 좁아지는 이유는 여자 청소년의 음주행위가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 아니고 술을 마시지 않는 남자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Thompson et al., 1984).

③ 스트레스와 음주기대

알코올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와 긴장완화에 대한 이론은 매우 오랫동안 우리 주위에서 수용되어져 왔다. 인간은 긴장의 정도가 높아지면 술이 긴장을 완화시켜 준다고 기대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고, 이러한 기대가 충족된 후 다음에도 긴장완화를 위하여 술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주로 급격한 변화와 재적응의 시기이다(Mussen et al., 1974). 이 시기에는 새로운 스트레스와 불안이 지속될 수 있는 시기이며 동료집단의 압력에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다. 동료집단의 영향에 따라서 음주, 흡연 또는 기타 약물을 실험적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으며, 청소년이 귀속하고자 하는 집단규범과 일치하기 위해서 직접, 간접적인 사회적 영향력에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다. 스트레스는 음주를 통해 감소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와 긴장은 음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스트레스 감소이론에 의하면 음주자는 술이 긴장완화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습득하기 이전에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된다는 것이다(Jung, 1994). 음주효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개인의 음주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라는 기대이론이나 사회학습모델을 통한 청소년들의 음주행동에 대한 기대성향, 모델링 등은 청소년이 음주를 경험하기 이전부터 이미 음주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다(Smith et al., 1995).

(2) 환경적 요인

① 부모의 영향

청소년의 음주행위와 관련된 부모 요인은 크게 알코올관련 부모요인(*alcohol-specific family influences*)과 일반적 부모요인(*alcohol-nonspecific family influences*)으로 구분된다(Ellis et al., 1997). 가족연구, 입양아 연구, 쌍생아 연구 등을 통해서 부모의 음주행위와 음주문제가 자녀의 음주행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부모와 자녀 간의 애정적 관계와 부모가 자녀를 적절하게 감독하는 두 가지 중요한 차원이 청소년 음주와 관련된 일반적 부모요인에 포함되고 있는데 부적절한 부모역할(부족한 사랑, 지나친 비난과 적개심, 일관성 없는 훈련 및 감독)은 결국 아동의 공격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유형 형성에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많은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과 자녀의 음주행위 간의 일관성있고 유의미한 관계를 밝히고 있다(김용석, 1999; 김용석 등, 2000; Stice et al., 1993; White et al., 1993).

② 또래의 영향

어린 시절에 아동이 경험한 또래관계는 청소년이 된 후에 나타날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조사되어 있다(Kupersmidt et al., 1990). Parker와 Asher(1987)는 이것을 “어릴 때 경험하는 무질서는 그 아이가 자라나서 또래집단에 적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부적응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p. 378)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이 감수해야 하는 사회성 경험 정도의 감소를 의미하며, 또한 또래집단으로부터의 거절경험은 자신에 대한 개인적 부적절성, 외로움, 분노로 연결되어 결국 음주행위와 같은 부적응적 행동을 야기한다고 하였다(Kupersmidt et al., 1990). 한편, 유년시절의 공격성변인은 또래집단에 의한 거절보다도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어 어린 시절에 나타나는 공격성은 또래집단의 거절경험에 대한 선행변인으로 설명한다(Dodge et al., 1999).

비행또래집단에 합류하게 된 청소년의 경우 또래집단의 영향력을 보는 견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비행또래집단의 성원들이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학습에 영향을 주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비행에 관한 잠재성을 지닌 청소년이 유사한 비행또래집단을 선택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어쨌든, 또래집단에서의 영향은 특정행동에 대한 모델링과 모방을 통하여 발생하며, 알코올과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ok et al., 1990).

(3) 심리사회적 자원

① 대처기술

사회학습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인지행동접근법이 문제성 음주 및 약물사용을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부적절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듯이(Kadden, 1994), 청소년이 일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도전에 대처하는 기술의 정도는 개인의 음주행동과 밀접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adizza et al., 1999). 이는 청소년이 적절한 대처기술이 없는 경우 음주행위를 통해서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정서적인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알코올은 대처수단으로 선택되게 되며,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상호 연결되었을 때 별다른 해결법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음주행위로 이어지게 된다(Cooper et al., 1992).

② 인지적 통제

인지적 통제(*cognitive control*)란 환경적 자극을 자신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말하며 통제의 소재(*locus of control*),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등이 인지적 통제의 범주에 속한다(Mirowsky et al., 1984, 재인용 Aneshensel, 1992). 자기효능감의 개념은 약물사용과 약물중독에도 적용되어 약물이 개인에게 주는 효과와 고위험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이 알코올 의존을 결정짓는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Kadden, 1994). 알코올이 긴장과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거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하는 개인, 또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인지하는 개인은 음주를 통해 점차 알코올에 의존하게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회학습이론은 더 나아가 자기효능감은 고위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대처기술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Abrams et al., 1987).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보다 적극적이고 적합한 대처기술을 사용하며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들은 음주와 같은 부적합한 대처기술을 사용한다. 음주는 일종의 부적합한 대처방법으로서 알코올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좋은 또는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될 때 개인은 이 방법을 선택하고 알코올을 남용하게 된다.

③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가 종종 언급되고 있는데,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제공받는 지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는 타인들이 개인에게 행한 지지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Vaux, 1985). 사회적 지지는 대처기술 및 자기효능감(자존감)과 함께 보호요인으로 구별되고 있는데(Albee, 1982), 이는 청소년 음주행위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예: 스트레스)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지지가 충분하다고 인지하는 개인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도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hen et al., 1985).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 음주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Mason 등(2001)이 최근에 실시한 종단연구에서 청소년이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았다고 인지한 수준과 그들의 음주행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사회적 지지 또한 청소년 음주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인 것으로 보인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전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본 조사의 대상이다. 조사대상자가 특정 지역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고 표본의 대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을 대도시(서울 및 6대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군이하)으로 구분한 후 각 지역의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였다. 각 학교를 접촉하여 설문조사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였고 설문조사를 허락한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경우에는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373명의 중·고생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조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에 포함된 내용은 <표 1>과 같다.

음주기대: Christiansen 등(1989)의 알코올 기대 설문-청소년 유형(AEQ-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알코올 기대 설문-청소년 유형(AEQ-A)은 12세부터 19세의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척도로 9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소년 음주유형을 예측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되어 왔다(Christiansen, et al., 1989). 윤희미 등(1999)은

〈표 1〉 조사도구에 포함된 주요 내용

요인		세부항목
개인적 요인		성 연령 음주기대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	부모 관련 요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 부모-자녀간 정서적 유대 부모의 음주문제
	또래 관련 요인	또래 압력 친구의 음주빈도 친구의 음주량
심리·사회적 자원		사회적 지지 대처기술 인지적 통제

AEQ-A 중 우선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적합하다고 보이는 문항을 선별하고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음주기대를 4가지 하위영역(사회성 향상, 성적 기능 강화, 공격성, 긴장감소)으로 구성된 16문항으로 청소년의 음주기대를 측정하였으며 본 조사에서는 윤희미 등이 사용한 음주기대척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 원호택(1987)이 개발하고 김승미(1998)가 수정한 스트레스 척도로 청소년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을 측정하였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업, 학교, 친구, 가정, 자신과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아주 심하게 받는다'에 5점을 '전혀 받지 않는다'에 1점이 주어진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 부모의 감독은 Patterson 등(1984)이 개발한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 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는 용돈사용, 방과후와 외출시의 소재, 여가시간동안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정도를 질문하고 있다. 신뢰도는 .78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부모-자녀간 정서적 유대 :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유대는 Hudson(1982)이 개발한 Child's Attitude Toward Parent(이하 CATP)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ATP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예 :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이고 나머지 6문항은 긍정적인 문항(예 :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이다. CATP는 양육과 비행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Jang et al., 1997)에서 인용하였으며, 4점 척도인 번역본 CATP의 신뢰도는 .87로 양호한 편이었다(김용석 등, 2000).

부모의 음주문제 :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음주문제는 Family CAGE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알코올문제 선별도구인 CAGE를 수정한 것으로서 모의 음주문제를 선별하는 도구이다. Family CAGE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문항이상에 '예'로 응답한 경우 부모의 음주문제가 있는 것으로 고려한다(Werner et al., 1999).

또래영향 : Santor 등(2000)이 청소년의 약물사용과 관련된 또래압력을 측정하는 문항 중 음주와 관련된 또래압력을 묻는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장 친한 친구의 음주빈도와 그 친구가 한 자리에서 마시는 술의 양(잔수로 측정)을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친한 친구의 음주행위를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이 조사대상자를 통해 친구의 음주행위를 측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Barnes et al., 1995).

사회적 지지 : 박지원(198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대상자가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지지의 정도에 따라 '정말 그렇다'에 5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처기술 : Carver(1989)가 개발한 대처기술척도로 일반적으로 유용한 대처기술로 알려진 문제중심대처기술(*problem-focused coping*)을 측정하는 12문항을 활용하였다.

인지적 통제 : Newcomb 등(1986) 등이 개발한 3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문제상황을 해석 또는 평가하는 방식을 측정하고 있다. 국문으로 번안된 척도의 신뢰도는 .64로 원본의 신뢰도(.65)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음주행위 : 일반적으로 청소년 음주조사에서는 연구대상의 음주행위를 음주경험의 유무, 음주빈도, 음주량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본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음주행위를 평생 음주 경험의 유무(*lifetime alcohol use*, 조사시점까지 음주경험의 유무), 한 달 동안의 음주빈도(*current alcohol use*, 지난 30일 동안 음주를 한 횟수), 음주량(지난 30일 동안 마신 술의 양), 폭음(지난 30일 동안 하루에 5잔 이상 술을 마신 경우)으로 측정하였다.

음주문제 : 음주로 인해 조사대상자가 경험한 문제는 Rutgers Alcohol Problem Index(이하 RAPI)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RAPI는 12세부터 21세 사이의 청소년들

을 위해 고안된 23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서 윤혜미 등(1999)이 우리 상황에 맞게 18 문항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음주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제시하였으며 이 결과들을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1998)가 1997년에 실시한 전국 조사와 외국의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1997년도에 실시된 조사는 전국 7대 대도시(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소재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11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행위를 조사한 최초의 전국 조사이다. 외국의 자료로는 YRBS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YRBS에 대한 설명은 4장 4절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비교를 위한 국내외 조사와 본 조사는 청소년 음주행위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비교가 가능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음주행위와 다양한 요인들간의 관계는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을 한 달간 음주빈도와 음주량으로 설정하여 각각의 요인들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회귀모델을 성별, 학년별, 지역별로 분석하여 각 집단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패턴을 살펴보는 방법을 취하였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4,373명의 조사대상자가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성별분포를 보면, 남학생이 56.1%이고 여학생이 43.2%로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간 높았다. 학교별로는 고등학생의 비율이 중학생의 비율보다 약간 높았고 인문고의 비율이 실업고의 비율보다 약간 높았다. 지역별분포는 대도시의 비율이 38.0%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농어촌의 순이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N	%
전 체		4,373	100.0
성	남학생	2,453	56.1
	여학생	1,888	43.2
학교	중학교	1,894	43.3
	인문고	1,344	30.7
	실업고	1,135	26.0
지역	대도시	1,663	38.0
	중소도시	1,623	37.1
	농어촌	1,087	24.9

2) 조사대상자의 음주행위

(1) 음주경험

조사대상자 중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75.7%이고 조사시점까지 음주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4.3%로 10명 중 7명 이상의 청소년이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조사에서 밝혀진 청소년의 음주비율은 선행연구결과(문화체육부, 199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8)와 유사하였다. 성별에 따른 음주경험 유무를 보면, 남학생의 77.7%와 여학생의 73.1%가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경험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음주경험 유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본 조사의 표본크기의 영향인 것으로 고려된다. 학년에 따른 음주경험 유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10명 중 8명 이상이 음주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중학생의 경우 10명 중 6명이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청소년을 위한 음주예방 교육을 조기에 실시해야 함을 암시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지역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음주경험 유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농어촌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의 음주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의 음주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주목할 만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 음주경험

		있다	없다	χ^2
전체		3,308 (75.7)	1,064 (24.3)	
성별	남학생	1,905 (77.7)	548 (22.3)	12.16***
	여학생	1,379 (73.1)	508 (26.9)	
학교별	중학교	1,206 (63.7)	688 (36.3)	265.18***
	인문고	1,117 (83.2)	226 (16.8)	
	실업고	985 (86.8)	150 (13.2)	
지역별	대도시	1,270 (76.4)	393 (23.6)	25.27***
	중소도시	1,166 (71.9)	456 (28.1)	
	농어촌	872 (80.2)	215 (19.8)	

*** $p < .001$

(2) 한 달간 음주빈도와 음주량

지난 한 달간 음주빈도에 대한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한 달간 음주를 한 빈도가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한 달에 3.23회, 고등학생은 3.12회 음주를 하고 있었고 지역별로 보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가 가장 빈번하게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달간 음주빈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 달간 음주량에 대한 결과도 예상했던 결과가 나타났다. 남학생과 고등학생이 여학생과 중학생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학생의 음주량은 여학생의 2배 이상이었고 고등학생의 음주량은 중학생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가 가장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있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가 가장 적은 양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4〉 한 달간 음주빈도

		N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
전 체			2.60	4.56	
성별	남학생	1,626	3.23	5.22	-8.74**
	여학생	1,095	1.67	3.17	
학교별	중학교	947	1.63	3.66	50.84**
	인문고	979	2.55	4.17	
	실업고	811	3.79	5.59	
지역별	대도시	1,104	2.28	4.12	6.54**
	중소도시	914	2.62	4.17	
	농어촌	719	3.07	5.55	

** p<.01

〈표 5〉 한 달간 음주량

		N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
전 체		2,924	13.43	35.22	
성별	남학생	1,709	17.36	38.76	7.21***
	여학생	1,196	7.84	28.82	
학교별	중학교	1,053	6.17	29.90	52.41***
	인문고	1,013	13.32	26.27	
	실업고	858	22.46	46.61	
지역별	대도시	1,147	12.41	33.47	2.73
	중소도시	1,021	12.67	34.02	
	농어촌	756	16.00	35.22	

*** p<.001

(3) 폭음

음주실태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한자리에서 5잔 이상 마신 날이 한 달에 5일 이상인 경우 폭음(*heavy drinking*)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을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자리에서 5잔 이상 마신 날이 한 달에 1일 이상으로 정의하였으며 YRBS(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0)도 이와 같은 기준을 활용하였다. 참고로 대학생의 경우 2일 이상을 폭음 또는 과음(*binge drinking*)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폭음은 음주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표 6>에 따르면, 한 달 동안 5잔 이상 마신 날의 평균이 1.6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평균이 2.14이고 고등학생의 평균이 2.20으로 본 조사에서 활용한 폭음의 정의를 넘어선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학생과 중학생의 평균이 1.0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조사대상자의 음주행위와 관련된 다른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가 한 자리에서 마시는 술의 양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의 음주행위에 대한 관심이 보다 요구된다.

(4) 음주로 인해 경험한 문제

<표 7>은 음주로 인해 조사대상자가 경험한 문제의 빈도분석 결과이다. <표 7>에 따르면, 조사대상자가 음주로 인해 경험한 문제 중 '다른 사람을 황당하게 하거나 무안하게 했다'(23.1%), '자신의 음주를 조절하기 위해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만 술을 마셨다'(23.0%), '술값을 너무 많이 써서 다른 것을 살 수 없었다'(18.8%)가 상위 3순위를 차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나 계속 마셨다', '친구, 주위사람들로부터 술을 줄이거나 끊으라는 말을 들었다'를 경험한 조사대

<표 6> 폭음

		N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
전체		2,813	1.67	3.69	
성별	남학생	1,664	2.14	4.19	-11.11***
	여학생	1,131	.98	2.68	
학교별	중학교	987	0.71	2.62	77.34***
	인문고	1,008	1.68	3.14	
	실업고	818	2.82	4.89	
지역별	대도시	1,112	1.41	3.08	9.32***
	중소도시	974	1.60	3.08	
	농어촌	727	2.16	5.01	

*** $p < .001$

〈표 7〉 음주로 인해 경험한 문제

단위: %

내 용	전혀 없다	1~2번	3~5번	6번 이상
숙제나 시험공부를 할 수 없었다.	85.6	10.0	2.7	0.8
싸움에 끼여들거나, 나쁜 행동 또는 욕을 했다.	82.2	11.2	3.9	1.3
술값을 너무 많이 써서 다른 것을 살 수 없었다.	81.2	12.1	3.8	1.5
취한 채 학교에 갔다.	91.0	6.3	1.4	0.6
다른 사람을 황당하게 하거나 무안하게 했다.	76.9	17.0	3.7	1.3
자신의 책임을 부정했다.	87.3	9.0	2.2	0.8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그전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다.	87.3	7.6	2.9	1.2
자신의 음주를 조절하기 위해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만 술을 마셨다.	77.0	14.3	4.7	1.7
술을 줄이거나 끊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	84.4	11.8	2.5	0.3
성격이 변했음을 알게 되었다.	84.4	11.8	2.5	0.3
학교에서 일찍 조퇴했다.	95.7	2.8	0.9	0.2
술을 끊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	89.6	6.0	2.2	0.5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93.5	4.6	1.0	0.5
갑자기 정신이 회미해지거나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	85.4	11.1	2.1	0.6
친구와 싸우거나 말다툼을 하고, 나쁜 감정을 가졌다.	88.7	8.2	1.9	0.6
가족과 싸우거나 말다툼을 하고, 나쁜 감정을 가졌다.	93.6	4.2	1.2	0.5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나 계속 마셨다.	85.6	9.0	3.0	0.8

상자의 비율이 각각 14.6%와 10.3%이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DSM-IV의 알코올 남용 진단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청소년이 술과 음주로 인해 보다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소년 음주행위의 변화

본 절에서는 본 조사의 결과와 1997년에 실시한 전국 청소년 음주실태조사의 결과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1998)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실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실 국내의 경우 외국과는 달리 청소년 음주행위와

관련된 종단자료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간적 흐름에 따른 청소년 음주행위의 변화에 대한 정보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음주경험 유무의 변화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경험 유무의 변화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단순히 음주를 경험한 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조사에서 음주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75.7%였고 1997년의 경우 74.0%로 음주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1.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음주경험 유무의 변화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으나, 남학생과 여학생의 음주경험 유무의 변화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음주를 경험한 비율이 1997년도 조사에서는 78.5%에서 2000년도 조사에서 77.7%로 감소하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69.0%에서 73.1%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여학생의 음주경험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후속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음주경험률의 변화의 차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 따른 음주경험률의 변화는 고등학생의 음주경험률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인 중학생들의 음주경험률이 1997년에 비해 6.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음주빈도의 변화

<표 9>는 1년간 음주빈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매일 마셨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7년의 조사에서는 0.4%였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0.8%로 나타나 2배가 증가한 반면, 1년에 1~2회 정도 음주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1997년 조사에 비해 2000년 조사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1~2회 정도 음주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두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년에 3~5회 정도 음주를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두 조사에서 모두 2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주일에 1회 이상 음주를 한 비율을 보면 음주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즉 1997년 조사의 경우 6.9%였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11.1%로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빈도가 오히려 증가하였다.

〈표 8〉 음주경험의 변화

음주경험		2000년		1997년	
		N	%	N	%
전체		3,308	75.7	2,117	74.0
성	남학생	1,905	77.7	1,167	78.5
	여학생	1,379	73.1	916	69.0
학교	중학교	1,206	63.7	680	57.7
	인문고	1,117	83.2	837	85.5
	실업고	985	86.8	599	85.9

〈표 9〉 음주빈도의 변화

	2000년		1997년	
	N	%	N	%
매일	24	0.8	7	0.4
일주일에 5~6회	26	0.9	13	0.7
일주일에 3~4회	59	1.9	16	0.9
일주일에 1~2회	228	7.5	87	4.9
한 달에 3~4회	243	8.0	104	5.8
한 달에 1~2회	433	14.2	246	13.7
한 달에 1회 미만	348	11.4	246	13.7
1년에 3~5회	526	17.3	373	20.8
1년에 1~2회	1162	38.1	699	39.1

(3) 취한 빈도의 변화

〈표 10〉은 1년간 취한 빈도에 대한 결과이다. 〈표 10〉의 결과는 1년간 음주빈도의 결과(표 9)와 유사한데, 즉 매일 취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7년 조사에서는 0.4% 였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0.8%로 두 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8.3%에서 24.5%로 감소하였다. 1주일에 1회 이상 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97년 조사에서는 3.2%였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5.1%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취한 경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취한 경험의 변화

	2000년		1997년	
	N	%	N	%
매일	25	0.8	7	0.4
일주일에 5~6회	11	0.3	7	0.4
일주일에 3~4회	15	0.5	7	0.4
일주일에 1~2회	117	3.5	36	2.0
한 달에 3~4회	86	2.6	36	2.0
한 달에 1~2회	222	6.7	80	4.5
한 달에 1회 미만	382	11.5	192	10.7
1년에 3~5회	212	6.4	135	7.5
1년에 1~2회	1429	43.2	787	43.8
전혀 없다	810	24.5	508	28.3

4) 외국 청소년의 음주행위와 비교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행위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최근에 미국에서 실시된 청소년 음주행위와 관련된 자료와 비교를 하였다. 비교를 위해 활용된 자료는 1999년에 실시된 YRBS(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0)의 결과인데 YRBS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국조사로서 청소년의 음주행위가 조사내용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YRBS는 9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만으로 제한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음주경험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82.7%가 그리고 미국 청소년의 81.0%가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는 없었으나 한국과 미국에서 청소년의 음주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달간 음주행위에서도 양국간에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폭음의 경우 우리나라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폭음을 경험한 비율이 35.5%로 미국의 31.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1〉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혹은 약간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간의 차이가 미국

〈표 11〉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음주행위의 비교

음주행위		한국 (%)	미국 (%)
음주경험	전체	82.7	81.0
	남학생	84.5	80.4
	여학생	80.0	81.7
한 달간 음주경험	전체	49.0	50.0
	남학생	54.8	52.3
	여학생	40.6	47.7
폭음	전체	35.5	31.5
	남학생	42.1	34.9
	여학생	25.7	28.1

의 자료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달간 음주경험을 보면 미국 자료는 남학생의 52.3%와 여학생의 47.7%로 약 5%의 차이인 반면, 우리나라 자료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14%를 넘어서고 있다. 폭음의 경우도 남녀간의 차이가 우리나라 자료에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자료에서 보이는 남녀간의 큰 차이는 남성의 음주에 대해 보다 관대한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를 반영하는 자료로 볼 수 있겠다.

5) 청소년 음주행위와 관련 요인들간의 관계

(1) 회귀모델

본 조사에서 청소년 음주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이는 요인들을 모두 회귀모델에 투입하여 청소년 음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심리·사회적 자원 등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 음주행위와 관련있는 요인들을 포함하였고 청소년의 음주행위를 이해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종속변인으로는 조사대상자의 한 달간 음주빈도와 음주량으로 설정하였다. 청소년보다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폭음, 음주문제 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표 12〉는 두 회귀모델의 결과가 거의 유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개인적 요인과 또래 관련 요인이 조사대상자의 음주행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성, 연령, 음주기대 하위영역 중 사교성 향상과 성적 기능 향상, 친구의 음주행위가 조사대상자의 음주빈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음주행위와 관련된 요인들 중에서 또래 관련 요인, 즉 친한 친구의 음주빈도와 조사대상자의 음주행위와의 관계의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유대가 강할수록, 조사대상자가 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문제중심적 대처기술을 활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표 12〉 회귀모델

요인		종속변인 : 음주빈도		종속변인 : 음주량	
		Beta	t	Beta	t
개인적 요인	성	-.08	-4.19***	-.06	-3.18**
	연령	.06	2.85**	.08	3.49***
	사교성 향상	.08	3.14**	.02	.82
	성적 기능 향상	.05	2.31*	.07	2.97**
	공격성	.01	.22	.05	2.00*
	긴장 감소	.04	1.64	-.01	-.50
	스트레스	.02	.95	-.03	-1.09
환경적 요인	정서적 유대	-.06	-2.75**	-.01	-.21
	부모의 통제	-.004	-.19	-.03	-1.25
	부모의 음주문제	.03	1.75	.02	1.11
	또래압력	.02	.79	.01	.65
	친구의 음주빈도	.43	20.01***	.25	11.25***
	친구의 음주량	.07	3.28**	.20	8.49***
심리 사회적 자원	사회적 지지	.04	1.62	.03	1.29
	대처기술	-.06	-3.03**	-.05	-2.51*
	인지적 통제	-.04	-1.74	-.05	-2.15*
		R ² = .34 F=63.97*** 상수= -.43		R ² = .25 F=41.51*** 상수= -14.19	

* p<.05, ** p<.01, *** p<.001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지할수록(인지적 통제) 조사대상자의 음주행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2) 성별 회귀모델

〈표 13〉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를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두 집단간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또래 관련 요인이 종속변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효과적인 대처기술의 소유도 조사대상자의 음주행위의 감소와 관계가 있었다. 〈표 13〉의 결과는 두 집단간에 보이는 뚜렷한 차이점도 제시하고 있다.

〈표 13〉 성별 회귀모델의 비교

요인	남학생				여학생				
	종속변인 - 음주빈도		종속변인 - 음주량		종속변인 - 음주빈도		종속변인 - 음주량		
	Beta	t	Beta	t	Beta	t	Beta	t	
개인적 요인	연령	.06	2.23*	.08	2.98**	.04	1.22	.05	1.51
	사교성 향상	.09	2.81**	.01	.24	.06	1.63	.11	2.77**
	성적 기능 향상	.07	2.28*	.08	2.59*	-.02	-.61	-.001	-.02
	공격성	.02	.58	.07	2.10*	-.03	-.84	-.03	-.78
	긴장 감소	.03	1.03	-.02	-.55	.06	1.70	.01	.32
	스트레스	.04	1.36	-.03	-1.17	-.01	-.38	.26	6.38***
환경적 요인	정서적 유대	-.05	-1.77	.01	.37	-.11	-2.89**	-.09	-2.35*
	부모의 통제	.02	.77	-.01	-.53	-.06	-1.89	-.13	-3.55***
	부모의 음주문제	.03	1.29	.04	1.40	.04	1.41	-.07	-2.21*
	또래압력	.02	.78	.01	.16	-.01	-.29	.03	.98
	친구의 음주빈도	.46	16.41***	.27	9.40***	.25	7.16***	.11	2.83**
	친구의 음주량	.02	.79	.19	6.33***	.32	8.86***	.26	6.38***
심리 사회적 자원	사회적 지지	.03	.89	.02	.70	.06	1.80	.10	2.57*
	대처기술	-.04	-1.52	-.06	-2.14*	-.11	-3.59***	-.01	-.15
	인지적 통제	-.04	-1.49	-.05	-1.61	-.05	-1.56	-.04	-1.17
		R ² = .36 F=39.05*** 상수= -2.19		R ² = .24 F=25.98*** 상수= -27.22		R ² = .34 F=27.05*** 상수= 2.17		R ² = .21 F=14.85*** 상수= 2.50	

* p<.05, ** p<.01, *** p<.001

남학생의 경우 연령, 음주기대(사교성 향상, 성적 기능 향상)와 같은 개인적 요인들이 종속변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 부모 관련 요인들이 여학생의 음주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가 양호하고 부모의 감독정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여학생의 음주행위는 감소하고 있으며 자신의 부모가 음주문제가 있다고 인식할수록 한 달간 마시는 술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 사이에서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개인적 요인 중 스트레스가 여학생들 사이에서 그들의 음주량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이는 여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을 해결

〈표 14〉 학교별 회귀모델의 비교(종속변인 : 음주빈도)

요 인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Beta	t	Beta	t	Beta	t
개인적 요인	성	-.06	-1.73	-.13	-4.05***	-.04	-1.16
	사교성 향상	.11	2.49*	.07	1.74	.09	2.16*
	성적 기능 향상	.06	1.49	.04	1.09	.04	.96
	공격성	-.03	-.75	-.02	-.38	.04	.95
	긴장 감소	-.01	-.26	.06	1.72	.03	.75
	스트레스	.01	.27	.06	1.75	-.02	-.59
환경적 요인	정서적 유대	-.05	-1.19	-.10	-2.54*	-.06	-1.46
	부모의 통제	.02	.39	-.01	-.26	-.003	-.09
	부모의 음주문제	-.04	-1.03	-.02	-.58	.09	2.74**
	또래압력	.11	3.00**	.02	.66	-.03	-.97
	친구의 음주빈도	.33	8.36***	.34	9.42***	.54	13.83***
	친구의 음주량	.13	3.34**	.14	3.82***	-.02	-.51
심리 사회적 자원	사회적 지지	-.003	-.08	.03	.82	.05	1.18
	대처기술	-.07	-1.91	-.02	-.50	-.05	-1.29
	인지적 통제	-.03	-.82	-.06	-1.71	-.02	-.54
		R ² = .29 F=16.12*** 상수= -.24		R ² = .30 F=19.25*** 상수= -1.24		R ² = .40 F=22.68*** 상수= -6.48	

* p<.05, ** p<.01, *** p<.001

〈표 15〉 학교별 회귀모델의 비교(종속변인 : 음주량)

요 인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Beta	t	Beta	t	Beta	t
개인적 요인	성	-.04	-1.00	-.10	-3.07**	-.04	-.91
	사교성 향상	.12	2.63**	-.003	-.09	.04	.75
	성적 기능 향상	.02	.56	.08	2.07*	.07	1.68
	공격성	-.04	-.91	.01	.28	.09	1.87
	긴장 감소	.08	1.80	.02	.48	-.05	-1.08
	스트레스	-.05	-1.30	-.004	-.10	-.05	-1.07
환경적 요인	정서적 유대	-.01	-.31	-.08	-2.04*	.03	.66
	부모의 통제	-.08	-2.12*	-.03	-.98	-.004	-.10
	부모의 음주문제	.04	.99	.02	.59	-.004	-.12
	또래압력	.07	1.71	.06	1.80	-.01	-.33
	친구의 음주빈도	.17	4.12***	.17	4.71***	.33	7.58***
	친구의 음주량	.19	4.57***	.32	9.13***	.11	2.55*
심리 사회적 자원	사회적 지지	.003	.06	.01	.38	.03	.72
	대처기술	-.06	-1.63	-.01	-.18	-.03	-.85
	인지적 통제	-.03	-.75	-.08	-2.48*	-.03	-.81
		R ² = .19 F=10.62*** 상수= 8.19		R ² = .30 F=19.46*** 상수= -10.44		R ² = .24 F=11.22*** 상수= -79.21	

* p<.05, ** p<.01, *** p<.001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주를 하는 경향이 남학생에 비해 높다는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3) 학교별 회귀모델

조사대상자를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로 구분한 후 회귀모델을 분석한 결과가 〈표 14〉와 〈표 15〉에 제시되어 있으며 세 집단의 공통점으로는 역시 또래 관련 요인이 조사대상자의 음주행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중학생 집단에서는 음주와 관련된 또래압력이 그들의 음주빈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고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두 변인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인 중학생 집단이 음주와 관련된 사회적 환경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은 실업계 고등학생 집단에서 다른 집단의 분석과는 달리 부모의 음주문제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이 그들의 음주빈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즉, 자신의 부모가 음주문제가 많다고 인식할수록 그들 자신도 음주를 자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 관련 요인 중 중학생의 경우 부모의 감독이 그리고 인문고 집단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가 조사대상자의 음주행위와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4) 지역별 회귀모델

다른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표 16>과 <표 17>에서 가장 뚜렷한 공통점으로는 친구의 음주빈도와 음주량과 조사대상자의 음주행위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세 집단

<표 16> 지역별 회귀모델의 비교(종속변인 : 음주빈도)

요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Beta	t	Beta	t	Beta	t
개인적 요인	성	-.09	-3.00**	-.12	-3.31**	-.04	-1.07
	연령	.06	1.87	.07	1.97*	.04	.96
	사교성 향상	.03	.79	.09	2.12*	.14	3.05**
	성적 기능 향상	.06	1.85	.05	1.17	.07	1.54
	공격성	.07	1.98*	-.08	-1.84	-.04	-.76
	긴장 감소	.04	1.09	.07	1.85	.01	.31
	스트레스	.01	.34	.04	1.03	.04	.88
환경적 요인	정서적 유대	-.09	-2.46*	-.08	-2.01*	-.02	-.49
	부모의 통제	-.03	-.93	-.04	-1.22	.08	1.88
	부모의 음주문제	.06	1.89	-.01	-.40	.05	1.43
	또래압력	.03	.97	-.01	-.39	.01	.26
	친구의 음주빈도	.38	11.65***	.38	9.65***	.57	13.31***
	친구의 음주량	.11	3.15**	.08	2.05*	.01	.16
심리 사회적 자원	사회적 지지	.05	1.30	.08	2.05*	-.02	-.51
	대처기술	-.04	-1.18	-.03	-.78	-.10	-2.62**
	인지적 통제	-.07	-2.32*	.05	1.26	-.07	-1.74
		R ² = .34 F=27.03*** 상수= .09		R ² = .31 F=17.57*** 상수= -1.50		R ² = .44 F=22.70*** 상수= -.17	

* p<.05, ** p<.01, *** p<.001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이다. 또한 음주기대와 음주행위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세 집단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양호할수록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들의 음주빈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효과적인 대처기술의 소유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음주빈도와 음주량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지역별 회귀모델의 비교(종속변인 : 음주량)

요 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Beta	t	Beta	t	Beta	t
개인적 요인	성	-.05	-1.68	-.07	-2.06*	-.07	-1.76
	연령	.05	1.49	.11	2.79**	.09	2.04*
	사교성 향상	.004	.09	.04	.91	.03	.64
	성적 기능 향상	.06	1.68	.03	.64	.17	3.60***
	공격성	.13	3.51***	-.01	-.12	-.08	-1.64
	긴장 감소	-.06	-1.47	.07	1.68	.01	.12
	스트레스	-.06	-1.66	-.07	-1.80	.08	1.82
환경적 요인	정서적 유대	-.01	-.14	-.07	-1.82	.05	1.18
	부모의 통제	-.04	-1.23	-.04	-1.13	.004	.09
	부모의 음주문제	.05	1.55	.01	.25	-.03	-.76
	또래압력	.02	.66	.03	.72	-.03	-.78
	친구의 음주빈도	.26	7.79***	.14	3.59***	.36	7.72***
	친구의 음주량	.20	5.86***	.26	6.47***	.12	2.58*
심리 사회적 자원	사회적 지지	.03	.82	.02	.46	.02	.42
	대처기술	-.04	-1.10	-.03	-.67	-.10	-2.43*
	인지적 통제	-.05	-1.34	-.02	-.50	-.06	-1.32
		R ² = .26 F=19.14*** 상수= -7.45		R ² = .24 F=13.60*** 상수= -5.62		R ² = .31 F=13.51*** 상수= -30.98	

* p<.05, ** p<.01, *** p<.001

5.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행위의 실태와 지난 3년간 청소년 음주행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 음주행위와 관련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75.7%로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음주경험률이 여학생의 음주경험률보다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음주경험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청소년 음주문제가 남학생과 여학생 공통의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음주경험률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학생의 경우 10명 중 6명이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 10명 중 8명 이상이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행위는 미국 청소년의 음주행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으나, 한 달 동안의 음주경험률과 폭음률에서는 미국 자료와 비교해 볼 때 성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3년간 청소년 음주행위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여학생들과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인 중학생들의 음주경험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청소년 음주와 관련요인을 회귀모델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일관성 있게 또래 관련 요인이 청소년의 음주행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가 양호하고 부모의 감독정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여학생의 음주행위는 감소하고 있으며 자신의 부모가 음주문제가 있다고 인식할수록 한 달간 마시는 술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부모 관련 요인들이 특히 여학생의 음주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부분적으로 나타난 결과이긴 하지만, 심리·사회적 자원 중에서 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인 문제 대처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청소년의 음주행위가 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이 직면한 문제 상황 등을 운명이나 우연으로 해석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약한 청소년은 자주 술을 마시고 마시는 술의 양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청소년의 음주행위의 변화를 파악하고 청소년 음주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본 연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국내에서도 청소년 음주행위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청소년의 음주행위를 보다 더 이해하려는 후속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는 특히 우리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음주문화가 상당히 관대하고 허용적이기 때문에 음주문화와 관련된 요인들을 고려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행위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문화에 맞는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 청소년 음주와 관련된 국내 연구동향을 보면 대부분 대도시 위주로 실시되어 왔으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음주행위가 더 활발하다는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들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승미. 1998.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석. 1999.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와 정신증상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 7집, pp. 27~46.
- _____. 1999.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 음주와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제 39호, pp. 103~127.
- 김용석·윤혜미. 2001. "중학생들의 음주기대와 음주기대 관련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 44호, pp. 91~116.
- 김용석·박명숙. 2000. "청소년문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 음주와 비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 42호, pp. 83~106.
- 문화체육부. 1994. 《청소년 약물남용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 윤혜미·김용석·장승욱. 1999.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와 한국 고등학생들의 음주행위 간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제 38호, pp. 153~179.
- 장승욱. 2000. "청소년기 문제성음주 실태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 42호, pp. 372~397.
-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1998.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알코올문제 예방 프로그램

개발 : 최종 보고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8. 《마약없는 밝은사회》 1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에 관한 연구 : 술·담배를 중심으로”.

- Abrams, D. B., & Niaura, R. S. 1987. Social Learning Theory. IN H. T. Blane & K. E. Leonard (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NY: Guildford Press, pp. 131~178.
- Albee, G. W. 1982. “Preventing Psychopathology and Promoting Human Potential,” *American Psychologist*, 37(9), pp. 1043~1050.
- Aneshensel, C. S. 1992. “Social Stress: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pp. 15~38.
- Backman, J. G. et al. 1991. “Racial/Ethnic Differences in Smoking, Drinking, and Illicit Drug Use among American High School Seniors, 1976~89,”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1(3), pp. 372~377.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rnes, G. M., Farrell, M. P. and Banerjee, S. 1995. “Family Influences on Alcohol Abuse and Other Problem Behaviors among Black and White Adolescents in a General Population Sample,” In G. M. Boyd (Eds.), *Alcohol Problems among Adolescents: Current Directions in Prevention Researc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pp. 13~31.
- Bradizza, C. M., Reifman, A., & Barnes, G. M. 1999. “Social and Coping Reasons for Drinking: Predicting Alcohol Misuse in Adolesc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0(4), pp. 491~507.
- Bucholz, K. K. 1990. A Review of Correlates of Alcohol Use and Alcohol Problems in Adolescence, IN Galanter, M., (Ed.), *Recent Developments in Alcoholism*, Vol. 8, New York: Plenum Press, pp. 111~123.
- Burke, K. C. et al. 1990. “Age at Onset of Selected Mental Disorders in Five Community Populations,” *Arch Gen Psychiatry*, 47(6), pp. 511~518.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pp. 267~283.
-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0.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United States 1999. MMWR: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49(SS5).

-
- Christiansen, B.A., Smith, G.T., Roehling, P.V., & Goldman, M.S. 1989. "Using Alcohol Expectancies to Predict Adolescent Drinking Behavior after One Yea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 57, pp.93~99.
- Cohen, S., & Willis, G.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 Cooper, L. et al. 1992. Stress and Alcohol Use: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Coping and Alcohol Expectanc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1), pp.139~154.
- Costa, F.M., Jessor, R., & Turbin, M.S. 1999. "Transition into Adolescent Problem Drinking: The Role of Psychosoci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0(4), pp.480~492.
- Dodge, K.A. et al. 1990. "Peer Status and Aggression in Boys' Group: Developmental and Contextual Analyses," *Child Development*, 61, pp.1289~1307.
- Ellis, D.A., Zucker, R.A. & Fitzgerald, H.E. 1997. "The Role of Family Influences and Risk." *Alcohol Health & Research World*, 21(3), pp.216~218.
- Fillmore, K.M. 1988. *Alcohol Use across the Life Course: A Critical Review of 70 Years of International Longitudinal Research*, Toronto: Addiction Research Foundation.
- Hilton, M.E. 1991. Trends in U.S. Drinking Patterns. IN Clark, W.B., and Hilton, M.E. (Eds.), *Alcohol in America: Drinking Practices and Problems*,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121~138.
- Hudson, Walter. 1982. *The Clinical Measurement Package: A Field Manual*, Homewood: IL: Dorsey Press.
- Jessor, R., & Jessor, S.L. 1977. *Problem Behavior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Youth*, New York: Academic Press.
- Johnston, L.D. et al. 1991. Drug Use among American High School Seniors, College Students and Young Adults, 1975~1990, *High School Seniors*, Vol.1, Rockville, MD: NIDA.
- Jung, J. 1994. *Under the Influence: Alcohol and Human Behavior*, Brooks Cole Publishing Co.
- Kadden, R.M. 1994. "Cognitive-Behavioral Approaches to Alcoholism Treatment," *Alcohol Health & Research World*, 18(4), pp.279~286.
- Kandel, D.B. 1980. "Drug and Drinking Behavior among Youth," *Annual Review of Sociology*, 6, pp.235~285.
- Kandel, D.B., & Yamaguchi, K. 1985. Developmental Patterns of the Use of Legal,

-
- Illegal and Medically Prescribed Psychotropic Drug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IN Jones, C.R., & Battjes, R.J. (Eds.). *Etiology of Drug Abuse: Implications for Prevention*, pp.193~235.
- Kumpersmidt, J.B. et al. 1990. The Role of Poor Peer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s. IN Asher, S.R., and Coie, J.D.,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son, W.A., & Windle, M. 2001. "Family, Religious, School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Alcohol Us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2, pp. 44~53.
- Mussen, P., Conger, J., & Kagan, J. 197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4th ed, New York: Harper and Row.
- Newcomb, M.D., & Harlow, L.L. 1986. "Life Events and Substance Use among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Loss of Control and Meaningless in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3), pp.564~577.
- O'Malley, P., Johnston, L., & Bachman, J. 1998.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Alcohol Health & Research World*, 22(2), pp. 85~94.
- Parker, J.G., and Asher, S.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pp.357~389.
- Patterson, G.R., & Strouhamer-Loeber, M. 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55, pp.1299~1307.
- Samson, H.H. et al. 1989. "The Relation of Initial Alcohol Experiences to Current Alcohol Consumption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0(3), pp. 254~260.
- Santor, D.A., Messervey, D., & Kusumakar, V. 2000. "Measuring Peer Pressure, Popularity, and Conformity in Adolescent Boys and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pp.162~171.
- Scheier, L.M., Botvin, G.J., Baker, E. 1997.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Alcohol Involvement and Transitions in Alcohol Use: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8, pp.652~667.
- Smith, G.T. & Goldman, M.S. 1995. Alcohol Expectancy Theory and the Identification of High-Risk Adolescents, IN G.M. Boyd et al. (Eds.), *Alcohol Problems among Adolescent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p.85~104.
- Stice, E., Barrera, M., and Chassin, L. 1993. "Relation of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to Adolescents' Externalizing Symptomatology and Substance Use: A

-
- Longitudinal Examination of Curvilinear Effec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1(6), pp. 609~629.
- Thompson, K. M., and Wilsnack, R. W. 1984. Drinking and Drinking Problems among Female Adolescents, IN Wilsnack, S., and Beckman, L. (Eds.), *Alcohol Problems in Women: Antecedents, Consequences, and Intervention*, New York: Guildford, pp. 37~65.
- Vaus, A. 1985. "Variation in Social Support Associated with Gender, Ethnicity, and Age". *Journal of Social Issues*, 41, pp. 89~110.
- Werner, M. J., Joffe, A., Graham, A. V. 1999. "Screening, Early Identification, and Office-Based Intervention with Children and Youth Living in Substance-Abusing Families," *Pediatrics*, 103(5), pp. 1099~1104.
- White, H., Hansell, S., and Brick, J. 1993. "Alcohol Use and Aggression among Youth," *Alcohol Health & Research World*, 17, pp. 144~150.

A National Study on Adolescent Alcohol Use Prevalence and Related Factors

Kim, Yong-Seok (Assistant Professor,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im, Jung-Woo (Associat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Kim, Sung-Chun (Associate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prevalence and change of Korean adolescent alcohol use and to identify related factors to adolescent alcohol use.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a total of 4,373 adolescents nationally. Followings ar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75.7 percent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tried alcohol in their life time. More male respondents tried alcohol in their lifetime than female respondents, but there was

no big difference. Findings on alcohol consumption by grade showed that as adolescents get older, they are more likely to try alcohol. Second, this study also found that whereas the drinking rates of male adolescents and higher graders were steady, the rates of female adolescents and lower graders were increased since 1997. Third, this study compared its findings with adolescent alcohol use in the United States. Little differences existed in measures of adolescent alcohol use in the two countries, but the differences in the rates of the past-month alcohol use and heavy drinking was greater in Korean adolescents than in American adolescents. Finally, this study found that peer-related factors such as friend's alcohol use was the strongest factor related to respondents' alcohol use. Family-related factors and respondents' levels of psychosocial resources (cognitive control, coping skills, social support) were also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alcohol use. This study suggest that future studies consider cultural aspects and regional differences in order to understand adolescent alcohol use in more depth.